



[금융] 감독당국에 반기든 은행들 키코 배상거부 확산 05



Economy

코스피	1954.77 (-85.45)	코스닥	614.60 (-28.12)
금리 (연이자율)	1.04 (-0.04)	환율 (원/달러)	1204.20 (+11.90)(9일)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현황 사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희망고문’하는 정부 예산부족-늦장심사 신청액 3.7%만 집행

# 코로나 팬더믹... 금·환율 급등, 증시 폭락

코스피 4.19% 내린 1954.77 마감 외인 1.3조 매도... 9년만에 최대폭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85.45포인트(4.19%) 내린 1954.77로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더믹) 우려가 금융시장을 다시 강타했다. 코로나19가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국내 증시는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였다. 4% 이상 급락했다. 9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5.45포인트(-4.19%) 급락한 1954.77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정 반대 움직임을 가져갔다. 외국인은 1조 3072억원을 팔아치웠고, 개인은 1조 2744억원을 사들였다. 외국인은 1조 2759억원을 팔았던 2011년 8월 10일 이후 약 9년 만의 최대 매도폭을 보였다. 기관은 407억원 순매도했다.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07%, 6.16% 급락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매도 우위 속에 전 거래일보다 28.12포인트(-4.38%) 하락한 614.60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미국 증시 역시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에스앤피(S&P)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모두 1~2% 하락했다.

‘팬더믹 공포’에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을 꺼리는 모양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아시아에선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완만해졌지만 유럽과 미국 위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향후 추이에 따라 세계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코로나19가 초저금리 시대를 앞당겼다”며 “바이러스 확산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확산이 언제까지 지속하느냐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가 0%대로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이날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현물의 1g 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94% 상승한 6만4654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때 6만5400원까지 올라 장중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시가총액 50위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0.61%)와 한국전력(8.06%) 단 2개에 불과했다. 국내



면 마스크 착용한 총리·장관들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첫날인 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벗고 면 마스크를 일제히 착용했다. 총리와 장관들은 이날부터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현장을 돌아봤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 총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 소상공인 경영자금 ‘그림의 떡’

경영애로자금 신청접수 3주만에 건수 4.3만건, 신청액 2.2조 달해 보증부 대출심사, 최대 2달 지연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한데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제 지원자금을 받기까지는 두 달이 넘게 걸린다.

시중은행의 긴급 대출이 사실상 쉽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기밀 곳은 정부의 금융지원이지만 현실과 달리 정부가 자금 확대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이 나섰다.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증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은행들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 속도 더딘 보증부 대출 집행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신청 금액은 2조23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일 첫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3주 만의 액수로, 신청 건수는 4만3093건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첫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 발표 당시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으로 20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 당일 985억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준비 자금을 초과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3조원을 육박한다. 지난 한 달간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지원한 금융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9800억원, 민간금융회사를 통해서 약 8100억원이 지원됐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지원된 자금만 1조1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보증부 대출의 집행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로 6일 기준 소상공인 대출 신청 중 실제 자금이 집행된 건수는 1806건, 총 827억원으로 전체 신청금액의 3.7%(827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상담·심사에 과부하가 걸렸다.

### ◆ 금융권 ‘보증심사 기간 줄여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거나 보증 심사를 위한 현장 실사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중기부는 기금변경을 통해 경영애로자금을 5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9200억원을 증액해 총 1조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3면에 계속)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금일(03.09) 접수마감 안내

1. 월 2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금일 마감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03.10(화)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공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서비스와 무관하게 공간 지역센터 62곳에서는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휴식시간 12:00-13:00)  
- 온라인접수 문의처 : ☎ 042-363-721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시행 중인 가운데 9일 일 2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돼 일찌감치 마감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롯데 구조조정 신호탄?... 하이마트 첫 희망퇴직

80여명 규모... 퇴직금·위로금 등 지급 롯데, 오프라인 대신 디지털 집중 전망

롯데하이마트가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선언한 2020 유통사업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을 받는다.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이 대상으로, 해당 조건에 맞는 직원은 80여명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연내 백화점·슈퍼 등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 20%(약 200개)를 정리하겠다고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슈퍼는 536곳 중 대형점 중심으로 20%, 양판점은 591곳 가운데 20% 정도, 백화점은 71곳 중 5곳이 폐쇄 대상이다. 롯데하이마트의 실적악화도 롯데쇼핑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3% 감소했으며, 롯데하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영업이익(1099억원)이 전년 대비 41.1% 급감했다. 2019년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2.9%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매출이 부진한 오프라인 매장 11개를 폐점하고 21개 매장은 통폐합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희망퇴직을 하는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희망퇴직 위로금, 창업·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한다.

업계는 롯데하이마트의 희망퇴직 결정이 롯데쇼핑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쇼핑은 앞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

는 일정 부분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오프라인 점포 운영대신 디지털 분야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디지털화를 추진해 현재 1만곳 이상인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인터넷의 연계를 강화해 매출 증대를 노리는 '옴니 채널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로 롯데그룹이 7개 쇼핑 채널을 통합한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ON)'을 이달 중 공식 오픈한다. 현재 사업에 앞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과 이용약관 통합 절차를 밟고 있다.

롯데온은 롯데 유통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 온라인 쇼핑몰이다.

롯데는 롯데온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온라인 취급액을 지금의 3배인 2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